

## 제2회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 올덴가로 올덴가!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오천그린광장 일대 콘텐츠 특화 권역으로 변신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 이듬하여 올덴가(All Content Garden)를 개최한다. 기업, 학생, 창작자는 자신의 영감을 콘텐츠로 선보이고 시민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오천그린광장은 이 기간 웹툰·애니메이션·게임 등 콘텐츠가 뛰어노는 무대로 변신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올덴가는 산업적인 측면에선 자체 IP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문화적으로는 순천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확립하는 데 집중했다.

▶ 캐릭터 드론쇼와 OST 오케스트라, 놓치지 아까운 콘텐츠 특화 공연!  
올덴가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 속 6만 평 광장 안에서 콘텐츠 전시·체험·공연을 종합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시그니처 공연으로 꼽히는 '캐릭터 특화 드론쇼'는 전국 최대 규모이자 최장시간 퍼포먼스로 구성돼 더욱 주목할 만하다. 시 마스코트인 루미퐁이와 지역기업의 IP는 물론, 국내외로 내로라하는 핑크퐁과 아기상어, 스퍼프, 벨리곰 등 다양한 캐릭터가 3천 대 드론의 움직임에 따라 웅장하게 표현될 예정이다.

광장에서 펼쳐지는 서울페스타 필

하모니(47인)의 'OST 오케스트라' 또한 메인 테마공연 중 하나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인어공주 등 글로벌 애니메이션 OST 연주와 함께 올해 넷플릭스 최대 히트작인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주제곡 골든, 소다팝까지 오케스트라 선율로 연주된다.

여기에 춤추는 지휘자로 화제를 모은 백운학의 역동적인 지휘와 실력과 뮤지컬배우 카이와 아이비의 합동 라이브까지 더해져 수준 높은 공연을 만끽할 수 있다.

▶ 더 핑크퐁 컴퍼니와 협업, 루미퐁이 콜라보 '핑크퐁 가든 워킹' 첫 선!  
올덴가는 단순 보고 즐기는 축제의 기능을 넘어 자체 캐릭터가 지닌 산업역량을 키워가는 중요한 매개이기도 하다. 순천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트랜디하게 재탄생시킨 요정 루미·퐁이 본격 알리기에 나섰다.

자칫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는 지자체 캐릭터의 편견을 깨고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글로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 더핑크퐁컴퍼니와 손잡고 핑크퐁 X 루미·퐁이 콜라보 '핑크퐁 가든 워킹'을 10월 19일에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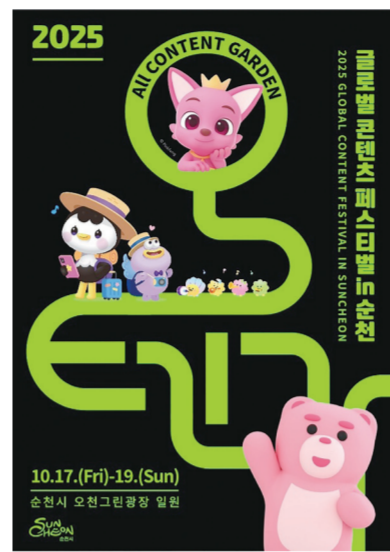
워킹키트로 핑크퐁과 루미·퐁이가 새겨진 티셔츠와 풍선 머리띠, 스포츠백, 완주메달 등 콜라보 제품과 순천시랑상품권 등을 제공해 자연스럽게 자체 캐릭터의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

다. 또한 루미퐁이 인지도 제고를 위해 미식과의 결합도 시도한다. 루미·퐁이 전용 팝업매장과 더불어 '콘텐츠 미식존'으로 ▲루미퐁이 도시락 만들기 체험 ▲루미퐁이 솜사탕 판매 ▲루미퐁이 라면가게 운영을 준비 중에 있다.

▶ 서브컬처 페스타, 연사 초청 토크콘서트, 콘텐츠 결산까지 한 번에!  
대중적인 콘텐츠를 넘어 서브컬처와의 만남도 기대를 높인다. 전국구 서브컬처 페스타인 '일러스타 페스타'가 이번 올덴가의 베프 행사로 함께 하게 됐다. 아마추어와 프로작가의 창작 굿즈를 만나볼 수 있는 크리에이터 마켓과 코스튬플레이, 버츄얼 유튜버 공연도 오천그린광장 한 편에 자리한다.

웹툰과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연사 초청 토크콘서트'도 마련했다. 드라마까지 집필된 웹툰 '찌질의 역사' 원작자인 김동 작가와 애니메이션 '룩백'으로 일본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오시야마 키요타카 감독이 순천에 방문한다.

뿐만 아니라 웹툰 공모대전부터 학생 애니메이션 어워드, AI 게임잼의 수상작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어워드 존'과 순천대학교, 청암대학교, 제일대학교 등 관련 학과 학생들의 작품을 한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합동 작품



전시존'을 통해 상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올덴가는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하는 장이기도 하지만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콘텐츠로 일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라며, "콘텐츠를 향한 비전 있는 기업과 학생, 창작자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며, 콘텐츠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순천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올덴가는 지역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상담회, IP 피칭, 투자유치 설명회 등 B2B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양의 문화자산**  
시를 품어 빛을 전한 국문학자 백영 정병욱 교수를 아십니까?

운동주 사본을 보존하여 세상에 알리고, 광양 진월 망덕에서 정준을 본연

### "백영 정병욱 선생" 문화제

때	2025년 9월 26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진월면 사무소 달빛나루 종합복지센터 다목적강당
주최 / 주관	광양시 / 진월면 발전협의회

### 광양시, 운동주를 알린 '백영 정병욱 선생 문화제' 개최

광양시는 진월면발전협의회(회장 김현욱)가 오는 9월 26일 오후 2시 달빛나루 종합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백영 정병욱 선생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운동주 시인의 유고를 보존·전승한 인물로만 알려졌던 정병욱 선생의 삶과 학문적 업적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5년 광양시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문화제는 진월면발전협의회가 주관하고 광양시가 주최하며 광양시의회와 광양문화원이 함께 한다.

행사는 광양 출신 이연화 명창의 판소리 공연(고수 이영체)으로 문을 열며, 강연과 토론으로 이어진다. 강연 주제는 '백영 정병욱 선생과 우리 문화 예술의 뿌리'로, △이성용 전 광양시장(정병욱 선생 집안과 광양의 인연) △임주탁 부산대 교수(백영의 학문적 업적) △채희원 민족미학연구소장(백영의 풍류와 멋)이 발표를 맡는다.

토론에는 나종년 광양시문화해설사회 회장, 김용찬 순천대 교수, 손태도 한국전통공연예술학회장이 참여한다.

정병욱 선생(호 백영, 1922~1982)은 일제강점기였던 1922년 경남 남해군 설천면에서 태어났다.

1930년대에 부친 남파 정남섭 선생이 전남 광양 진월면 망덕리에 양조장을 차리면서 이곳으로 이주해 삼진강 변의 수려한 풍광과 지역 문화에 심취하며 소년기를 보냈으며, 이후 부산 동래고보(현 동래고등학교)와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

교)에 진학해 1940년 운동주와 선후배로 만나 기숙사와 하숙에서 함께 생활했다.

연희전문 선배였던 운동주는 졸업 기념 시집 발간을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정병욱 선생은 그의 한글 시집 원고를 망덕리 자택에 숨겨 보존했다가 광복 후 유고 시집 발간을 통해 세상에 알렸다. 정 선생의 부모가 운영하던 망덕리 양조장의 자택은 2007년 국가등록문화유산 '운동주 유고보존 정병욱가옥'으로 등록돼, 현재도 관광객들이 시고 보존과 함께 두 사람의 우정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병욱 선생은 운동주를 세상에 알린 숭모한 업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학자로서도 한국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그는 부산대·연세대·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하며 한국고전문학 연구, 판소리 보존, 민족미학 탐구, 전통예술문화진흥 등 학문과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빛나는 업적을 이뤘다.

광양시와 진월면발전협의회는 이번 문화제가 정병욱 선생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한국근대문학의 영롱한 빛' 운동주의 시를 세상에 전한 후배라는 인식을 넘어, 삼진강이 품고 있는 풍광과 인정 풍속, 문화적 정서를 바탕으로 국문학 연구의 급자람을 세운 학자로서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을 결합한 종합예술극 '이상한 나라의 꼭두'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오는 10월 14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종합예술극 '이상한 나라의 꼭두' 기획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5 공연예술 지역 유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앞서 6월과 7월 성황리에 열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창작무용 '내 안의 물고기(My Inner Fish)'에 이어 세 번째 작품을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나주시와 공연단 예락이

### 나주시, 종합예술극 '이상한 나라의 꼭두' 기획공연 개최

문체부 지원 기획공연 시리즈 3탄... 나주문화예술회관 무대 올라

공동 주관한다.

이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연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공연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국비 1억 2천여만 원을 확보하고 올해 총 3편의 기획공연을 마련해 시민들이 다양한 순수 예술 장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한 나라의 꼭두'는 루이스 캐럴의 고전 명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전통 꼭두문화를 접목해 '꼭두나라'를 탐험하는 소녀 이수의 성장 이야기를 다룬다.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창작 음악, 무용, 연기, 타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가 어우러진 총체극 형식으로 꾸며졌다.

무대에서는 한지 탈, 장대 인형, 대형 종이 오브제 등 독특한 시각 요소가 활용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배우들의 재치 있는 연기와 전통 소리, 춤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완성됐다.

이번 기획공연은 유료로 진행되지만 나주시민에게는 80% 할인 혜택을 제공해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티켓은 10



월 1일부터 온라인 예매로 진행되며 네이버에서 '나주문화예술회관'을 검색하면 간편하게 예매할 수 있다. 나주/이영열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보다나온 농어촌**

지가 있다면

농지

금이 있습니다

어

금 바로 가입해야 할

꼭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